

Tiger with a White Eyebrow, TAROO

[여는 마당] 소리꾼들, 이야기관을 펼치다

P'ansori singers begin their tale.

똑딱딱 똑딱 또동 딱딱 똑딱~

휘~잉 휘슬 소리와 함께 이야기꾼들 손, 다리, 머리 등 신체 일부분이 높고 낮은 언덕 위로 보여지며 관객들에게 손짓, 몸짓을 건넨다.

똑딱딱 똑딱 또동 딱딱 똑딱~

악사들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면, 네 명의 이야기꾼들이 한 명씩 말을 하며 무대 앞쪽으로 나선다.

원경꾼 : 이야기는 이야기, 빼기는 빼기 A story is a story, a field is a field.

용화꾼 : 마른 논엔 까부기, Charcoal in the dry field.

엘라꾼: 진논엔 거머리 Leeches in the wet rice paddiesfield.

원경꾼: 나막신은 딸구댕 Wooden shoes clack. (엘라꾼) Clack (용화꾼) Clack

보라꾼 : 엽전은 땡그랑 Coins jingle. (꾼들) Jingle.

용화꾼 : 가만, 빗자루는...? Wait, and the broom?

이번엔 악사들이 악기소리로 호응해준다. 꾀들 모두 신이 나서 악사들과도, 관객들과도 말과 소리로 주고받는다.

용화꾼 : (커다랗게) 대문은 ? The main gate Wooden doors?

악사: (관객반응 잠시 기다린 다음, 대문 열리는 소리, 뽀~걱!)

엘라꾼 : (이번엔 관객 차례~ 쉬운 질문! Now the audience. This is an easy one.)

호루라기는 ? And the whistle? (관객반응에 따라~ 이야~ 잘한다. 한 번 더! Very good! Once more!)

보라꾼 : 바람은 ? How about the wind? (꾼들이 바람소리 우르르르 내주며 호응~)

원경꾼 : (관객에게 도전적인 질문! Now, a challenging one.)

그럼 신호등은? What about stoplights?

관객 반응에 호응하며, 빠른 속도로 꾀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며 간다.

꾼들 : 거적문은 (털썩 주저앉으며) 털썩! The straw mat door thuds!

꾼들 : 숟가락은 땡땡! The spoon? Clang, clang! Click click?

꾼들 : 젓가락은 찌르르르르! Chopsticks! Clinkclick.

꾼들, 신이 나서 찌르르르 하며 관객쪽으로 와짝 다가선다.

용화꾼 : 손바닥은? 다같이! 손바닥은 짹짹! The palms? Altogether! The palms?

Hands? Everybody! Clap! Clap!

이번엔 어렵게~ 손바닥은 저그장 짹짹! 손바닥은 저그장 짹짹!

Hands clap! Clap, clap! Hands clap! Clap, clap! Palms smack! Palms smack!
꾼들 : 어깨는 들썩들썩 어깨는 들썩들썩 (뒷걸음질로 자리잡고~)
Shoulders go up and down, up and down.

용화꾼 : 이야기는 이야기 A story is a story.

꾼들 : (소리조로) 이야기는 이야기~ 우리는 소릿꾼!

A story is a story ~ We are p'ansori singers

원경꾼 : (소리조로) 이야이야이야~ 귀로 Iya iya iya ~ to the ears

보라꾼 : 다시 (소리조로) 이야이야이야~ 귀로

Again. Iya iya iya ~ to the ears

엘라꾼 : 입에서 귀로 From the mouth to the ears.

용화꾼 : 귀에서 입으로 From the ears to the mouth.

보라꾼 : 이야기가 이렇게 (소리조로) 수리술술술술 흘러가지 않고

If the story doesn't flow

용화꾼 : 그대로 꼭꼭 뽀뽀 뽀뽀 눌러 있으면

But held within because it's suppressed (encased, closed in tightly)?

원경꾼 : 안 된다 이말이여. Then it can't be told. We just can't have it. It just can't be.

용화꾼: 그리 되면 귀신이 된단 말도 있거든.

There's a saying that if the a story isn't told then lit can turns into a ghost.

꾼들 : 그렇지, 암만 Of course.

엘라꾼 : 저기, 귀신이 되기 바로 직전! 겁나게 오래 묵힌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여.

Indeed, Tthere is an, it's just before the ghost appears! An extraordinary story that was salvaged just before it was about to turn a ghost. hasn't been

told for a long time.

용화꾼: 아, 그러니 우리 소리꾼들이 나선 거 아니여. (꾼들) 그렇지, 암만.

That's why we p'ansori singers are here. Isn't it? Yup, it sure is.

꾼들 이야기나무 있는 곳으로 간다.

보라꾼 : 우리 소리꾼들이 같이 한번 풀어볼테니 잘들 들어보시게.

Let us tell you a tale, so listen closely.

[첫째마당] 천살 먹은 호랑이

이야기나무에 여러 종류의 부채들이 접힌 채 꽂혀 있다. 네 명의꾼들이 저마다 부채를 하나씩 꺼내들고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부채를 뽑아든꾼이 옛이야기를 시

작한다.

용화꾼 : 그 때여,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Long, long ago, Ddeep in the woods long, long ago lived a tiger.

원경꾼 : 그 호랑이는 (소리조)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도 아니야.

He wasn't one, two, three, four, five, or six years old.

엘라꾼 : (소리조) 열 살 아니야, 백 살 아니야, 이백 살도 아니야~

Not 10 years, not a 100 years, not 200 years. Not even ten, a hundred, or
two hundred!

용화꾼: 무려 ! approximately He was!

보라꾼 : 처어어어언 살 썩이나 먹은 끈들 : 호랑이었겠다!

(소리조) but a thousand- year- old tiger.

보라꾼: 그 호랑이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높고 높은 절벽위에 어김없이 나타나 커다란

달을 올려다 보았는데!

Whenever the full moon appeared, the tiger looked up at it from the a tall cliffs.

(#1. 소리조로: 천살 호랑이 형상가 / 옛모리장단)

끈들 : 동아줄 같이 굵고 기다란 호랑이 꼬리

두껍고 강인한 다리는 툭툭 어슬렁 어슬렁

부드럽고 윤기나는 털 좀 보시게

달빛 받은 호랑이의 눈빛

The tiger's tail is was as thick and long as a like rope

His legs strong thick and robust legs saunter

A soft and shiny fur he had Look at that soft coat of his

And The tiger's eyes that reflect absorb the moonlight.

보라꾼 : 그 중에서도 달빛을 받아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길~고 하얀 눈썹~

But the shiniest thing he had there was something even brighter than his
eyes.

were They were his long, white eyebrows.

[둘째마당] 하얀 눈썹 호랑이의 활약상

원경꾼 : 근디 이 천 년이나 된 이 하얀 눈썹은 보통 눈썹이 아니여.

The 1000 year- old eyebrows aren't weren't any ordinary eyebrows.

엘라꾼 : 암만,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당게. Right. They've got very had special powers.

용화꾼 : 어떤 힘이냐 하면, 바로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말이이여.

A special power to read people's mind! They can discern people's hearts.

엘라꾼 : 호랑이가 길고 빛나는 하얀 눈썹을 휘~휘~ 날려

When Tthe tiger directs his's distinguished shiny eyebrows shine

꾼들 : 휘휘 날려 Shiny eyebrows!e

엘라꾼 : 사람한테 갖다대면 toward (or at)at people

보라꾼 : 아, 그 사람의 속이 아주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지. Their minds became clearly visible like a mirror.Then he discerns their hearts.

용화꾼 : 장난 아니겠는디! This is no joke!

꾼들: (서로 눈짓 주고받으며 환관 놀아볼까~) 어디, 해볼까! Well, shall we?

꾼들이 부채를 펼쳐들고 몸짓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 2. 노래: 속마음 송/ 자진모리)

꾼들: 휘~ 휘~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휘휘날려~ 하얀 눈썹 휘휘날려 하얀눈썹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쉴룩쉴룩 하얀눈썹

p'ansori singers : Swoosh, swooshShine, Shine

Let's see, let's see, let's see

Shine, shine, white eyebrows, shine white eyebrows

Swoosh, swoosh, white Eeyebrows flutter in the air shine and discern the hearts

When they flutter, minds become clear and visible

Discerning white Those eyebrowss, white and discerning.

보라꾼 : (부채를 찰지게 접으며) 기가 막히지! Isn't it wWonderful!

원경꾼 : 아 궁계 고 눈썹으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짐승같은 모습이 보이면

So the tiger reads others' mind with the aid of his eyebrows and if he didn't like what he saw looks inside people's hearts and if he sees

a beastly figure (heinous, crooked)

꾼들 : 보이면? What he saw...?

원경꾼 : 잡아먹는다 이말 아니여 the tigerHe devours them.eats the person.

꾼들: 그렇지! 암만! That's right! Of course, he does!

용화꾼 : 그럼 우리 호랑이의 활약상을 한 번 펼쳐봐야겠지!

Then we shall sing of the tiger's about the tiger's special prowess.

보라꾼 :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판소리를 한 자락 펼친다) 천살 먹은 호랑이님, 하얀
눈썹 바빠 움직여 (꾼들 가리키며) 요런요런 짐승 같은 놈들, 꿀꺽꿀꺽 삼켜가며

저기 저 백두산에서부터 내려 오시는데!

A thousand-year-old tiger, with his white eyebrows

Hunts and gulps down foul, beastly minds

All the way from Baekdu Mountain.

Busily moving his white eyebrows and eating those with impure hearts (beastly characters), the thousand year old tiger from Mount Baekdu approaches.

(#3. 소리: 호랑이 여정기 / 자진모리)

백두산 자락에서 늙은 부모 갖다버린 늑대심보 불효자 한 놈 꿀꺽하고,
묘향산 자락에서 꼬떡하면 동네사람들 두들겨 패던 싹닭심보 강패 한 놈 꿀꺽하고,
설악산, 오대산, 아차산을 지나 속마음 짐승 같은 놈들
딱 구천 구백 구십 구 마리 잡아먹고 요근처 남산국악당까지 내려 오셨겠다.

At the foot of Mount Baekdu, he swallowed a shameful sonthe cruel-hearted one
who abandoned his parents,

At the foot ofMyohyang, he gorged on swallowed thea village bully thug, who
bullied and beat his townspeople for no good reason,

While pPassing through Seorak mountain, Odae mountain, and Acha mountain, the
tiger ate 9,999 people andwith impure hearts. And finally, he even arrived here at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엘라꾼 : 그 때여, 한 도둑놈이 이 집 저 집 털어 한 보따리 훔어지고저기! 들어오는데!

Right then, aThe looterthief! with his spoils from one house to another,
walks in!, who had burglarized this house and that house, appears with his bundle.

다른 꾀들이 떠다밀며 보따리를 던져주자, 원경꾼이 보따리를 받고 얼떨결에 도둑이 되어
목에 찻던 머플러로 복면을 하고는 어깨춤을 추며 도둑으로 나선다.

원경꾼: 이왕 도둑이 됐으께 변신을 해봐야겠네. 후리리릭~ 압!

Since I've become a thief, I guess If I'm to be the looter, I'd better
transform.

(#4. 소리: 도둑가 / 중중머리)

도둑(원경꾼) : 얼씨구나 절씨구~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감쪽같이 남을 속이고 남의 집에 들어가

식은 죽 먹기로 도둑질을 해대는

도둑계의 대통령, 도바마!

오늘도 무사히 도둑질을 해냈구나~
이 마을에 가서 슬쩍 슬쩍 저 마을에 가서 슬슬쩍 슬쩍
아하! 아~ 아아아~ 아~ 엉덩이춤이 절로 난다~

Thief: The king of the world of thieves, Let me tell you who I am.
Who tricks people and goes into homes pretending to eat porridge but steals.
I sneak into homes and steal like the wind.
I've successfully done it once again today. I'm the president of the Looters,
Loo-bama!
Today was a success, too.
Going into one village, and then another.
I go into this town, then that town
A hahaha ~ I'm so happy I can't resist dancing.

보라꾼 : 이리 걷다 킁킁하고 깊은 산중에 들어섰는데!
The thief found himself deep in And so he entered the deep, the dark
woods!

사방 어둑어둑해지고, 깊은 밤 숲속에서 날 법한 소리들이 들린다.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
럽게 발걸음을 떼는 도둑.

보라꾼 : 으스스한 바람소리도 들리고, 한00마리나 모였는가 벌레들이 지들 손톱을 딱 붙이
고는 비비적비비적 한번 따라해봐~ 요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You can hear tThe winds shrillshrills. A multitude of insects make rubbing noise.
Such strange sounds.

도둑(원경꾼) : 아니 이게 뭐 소리여... What is this noise?

용화꾼 : 하필 거기는 바로 천살 먹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
Of all the places he could have been, he was where the thousand- year- old tiger
was lived!

도둑(원경꾼) : (슬슬 뒷걸음질을 치며) 근디 왜이리 등골이 오싹오싹하다냐?
Boy, I feel a chill down my spine! is it chilly!

엘라꾼 :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 뒤에서 호랑이가 통방울만한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고 있
거든. Of course, it's chilly he does! The tiger is glaring at him looking fiercely with

his bulging eyes.

꾼들이 자신의 머리와 부채를 활용해 호랑이의 통방울만한 눈을 만들어 콸콸 한다.

도둑(원경꾼) : (스스로 소리내며 걷는다) 슬금슬금 슬금슬금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Fox, oh fox, what are you doing?
(귀기울여 보나 아무 소리 안 들리자)잠자니? Are you sleeping?
(한숨 놓인다) 그러 그러, 밤엔 잠을 자야 착한 여우지.

Yes, yes, a good fox sleeps at night.

(뒤에서 꾀들이 호랑이눈에서 호랑이몸으로 변형하여 쿵 하는 발소리를 내자) 엄메야!
Yikes!

크, 큰 곰아, 큰 곰아 거, 거있니? LargeH..huge bear, large bear, are you there?
(아무 소리 안 들리자 살짝 안심하며) 거기 없지? 암만, 거있으면 안 되지...

You're not there, are you? Of course not, you shouldn't be there...

도둑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동안, 호랑이는 가만히 서서 통방울만한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도둑의 모습을 지켜본다. 도둑이 주춤주춤 뒷걸음질 쳐 호랑이 몸에 가닿자, 호랑이 꼬리가 출렁출렁 도둑의 움츠린 등을 건드린다.

도둑(원경꾼) : 뭐여... 자꾸 뭐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냐... (하며 더듬어 호랑이 꼬리

끄트머리를 잡는다)

What is might this be? thing brushing my back? This long thing loitering about?

도둑이 처음엔 무엇인지 몰라 쿵쿵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서서히 뒤를 돌아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눈앞에 호랑이의 머리가 보이는 것이었다.

도둑과 눈이 마주친 호랑이의 어흥! 하는 소리에 놀라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다.

(#5. 노래: 도둑 호들갑 송 / 휘모리 & 자진모리)

도둑(원경꾼): 오들오들 바들바들 내 다리가 왜 이러냐
이집지집 담념을제 깃털처럼 가볍고 표범같이 날쌌거늘
(늘어지듯) 어서~ 빨리~ 미친~ 듯이~ 도망치자
(도둑을 에워싸며 어호흥 달려드는 호랑이의 서슬에 도둑 주저앉는다)
내 다리가 미쳤구나!
이 다리는 내 다린디 내 다리가 분명한디
내 다리를 내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겠네
아이고 어쩔거나 꿈쩍없이 잡히~것네

Thief: Why are my legs trembling so?
I'm light as a feather when climbing over the walls of this house and that house
And Quick! sSwiftly, as like a leopard!, I must flee right away
My legs must have turned into liquid be crazy!
These are my legs. Surely, they're mine.
But I can't move them my legs as I wish.
Oh no, I'm caught.

도둑의 호들갑에 호랑이의 서슬조차 풀려버린다.

도둑(원경꾼): (오두방정 호들갑을 떤다) 이 다리는 내 다린디 내 다리가 분명한디
내 다리를 내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겠네. 이게 뭘 일이어~
These are my legs. Surely, they 'are mine. But I can't move themmy legs as I
wish. What is happening?

엘라꾼 : 호들갑, 호들갑, 저런 호들갑이 따로 없네
. Fuss, Fuss, what is all this fuss?
호랑이(용화꾼) : 어흐흥~ 그렇게 간이 콩알만해서야 그동안 도둑질을 잘도 해왔겠다.
어흐흥!
Roar! Why Sso fearful?, yYou said you were must have been an
excellent thief. Roar!

호랑이의 위협을 서글픈 소리로 막아내는 도둑.

(# 6. 소리: 도둑 구라가 / 중모리)

도둑(원경꾼) : 몸져 누운 늙은 어미 살리려면 명약이 필요하여 자그장장장~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딱 한 번! 아주~ 딱 한 번 도둑질을 하였네다.
Because mMy poor, ailing mother needs medicine.
I know it's wrong, but I had to do it just once.
호랑이(용화꾼) : 딱 한 번?! ... 내 얼핏 멀찍이서 썰룩썰룩 방정떠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나보다, 아무 조건 없이 놓아줄 것이니, 가서 어미 봉양 잘 하고
살아야 한다. (하며 쿵쿵 걸어 병풍 뒤로 사라진다)

Just once? It seems that I mI must've misunderstood you since I was watching you
from afar.

I will let you go free. You must now go and be good to your mother.

엘라꾼 : 하고는 돌아서 가다가 And so the thief was on his way

보라꾼 : (병풍 위로 얼굴을 내밀고는) 문득! And Suddenly!

용화꾼 : 뒤를 돌아보니. When the thief turned he looked around...his back.

넙죽 엎드려 있던 도둑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고는 몸을 털며 일어선다.

도둑(원경꾼) : ㅎㅎ 미련한 호랑이같으니, 역시 짐승은 짐승이여,
이 뛰어난 연기에 깜빡 속아 다잡은 먹잇감을 놓치고 지금쯤이면 침을
 째째 흘리고 있겠지.

Hahahaha! That stupid tiger! Animals sure are sStupid creature! Tricked by my
brilliant acting skills, the tiger let go of its prey. He'd be salivating by now.

목숨을 건진 도둑이 풍악을 울려라 외치고는 짐보따리를 휘둘리며 신나게 춤춘다. 호랑이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일어나와 도둑 주위를 에워싼다.

도둑(원경꾼) : (자화자찬) 요 요 이런 말빨은 어디서 배운거여! 기가 막히네~
How did I become so eloquentclever? It's amazingstonishing!

호랑이(꾼들) : 네 이 놈! How dare you!?

도둑이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만다. 호랑이가 주저앉은 도둑을 끌어와 무릎 꿇리며
도둑 주위를 뱅글뱅글 맴돈다. 후덜덜덜 소리내며 끌려가는 도둑.

호랑이(꾼들) : 뭐시? 미련한 호랑이 같으니? 역시 짐승은 짐승이여?
What did you say? I'm a stupid tiger? Animals are sStupid creature?

도둑(원경꾼) : 허억, 어찌 알았을까, 저건 내가 한 말인디!

How does he know what I was thinking?

호랑이(용화꾼) : 다잡은 먹이를 놓칠 뻔 했다가 (바짝 다가선다) 어흥~

뭘 그리 덜덜 떠느냐? 아 걱정 말아라. 아무리 허기가 쳐도 내 아무나

잡아 먹진 않는다. 나는 말이다,

I've almost lost my prey. Roar~ Why are you trembling? Do not worry. No matter
how hungry I might be, I don't just eat anyone.

호랑이(엘라꾼) :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I canlook into your heartdiscern the hearts of people

호랑이(보라꾼) : 그 속에 못되고 악한 짐승같은 모습이 보이면

And when I see ugliness in it that the heart is impure

호랑이(엘라꾼) : 그제야 잡아먹는다. That is when I eat.

도둑(원경꾼) : 예? 아니 어찌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겁니까요?

What? How can you look into my is that you can discern people's
hearts?

호랑이(용화꾼) : 이리 가까이 오너라. Come close.

호랑이(꾼들) : 보자보자보자보자 Let's see. Let's see. Let's see.

호랑이(용화꾼) : 니 속마음을 보자꾸나. Let's look inside.

도둑(원경꾼) : (덜덜 떨며) 아, 제 속마음이야 순하디순한 양처럼 아주 선하디 선하지요.

My heart is as clean and pure as like that of a lamb.

(# 8. 노래: 속마음 송 / 자진모리)

호랑이(꾼들) Tiger (p'ansori singers) : 휘~ 휘~

휘휘날려 하얀 눈썹 휘휘날려 하얀눈썹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쉴룩쉴룩 하얀눈썹

p'ansori singers : Shine, ShineSwoosh, swoosh

Let's see, let's see, let's see

Swoosh, swoosh, white eyebrows flutter in the air

Shine, shine, white eyebrows, shine white eyebrows

Eyebrows shine and discern the hearts When they flutter, minds become clear and visible

Discerning white eyebrows

White eyebrows

Those eyebrows, white and discerning.

엘라꾼 : 그 놈 속을 들여다보니, 능글능글 남 속이기 좋아하는 너구리 한 마리가 방정을 떨고 있구나.

The tiger saw inside and there was a deceitful raccoon that likes to trick others.

보라꾼 : 이리하여 호랑이는 이 너구리같은 도둑놈을 꿀꺽 삼켜 버리고는,

Therefore, the tiger the gulpswallowed down the raccoon-like thief.

용화꾼 : 이놈의 사람 놈들이 기가 막히고 한심하여 분통을 터트리는데!

hocked and fFrustration escalatinged withwith all the men impure-hearted he'd encountered, the tiger was outraged.

(# 9. 소리 : 호랑이 분통가 / 엇중중모리)

꾼들 : 어허~ 이런 께쌌히고 고얀 놈들!

어찌 그리 하나같이 겉과 속이 다르더냐 허~응~

오늘 만난 너구리 같은 도둑놈은 지 애미까지 팔아대니

인륜을 아느냐 천륜을 아느냐 허~응~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족족

너구리, 승냥이, 늑대, 불여우, 멧돼지, 하이에나까지

먹다보니 배 터지고 생각허니 속 터진다 허~응~

P'ansori singers: Disgraceful, filthy people!

How different the interior is from the exterior. Roar~

The thief I met today even sold off his own mother
Do you understand morality and filial piety? Roar~
The exterior is humane, but the interior is hideous and beastly.
I'm full and furious from eating every wild beast from
Raccoons, wolves, foxes, wild boars, and even hyenas.

[셋째마당] 삿삿 쓴 노인으로 변신해 마을로

용화꾼 : 허허...이렇듯 꿀꺽꿀꺽하는 호랑이 소문이 난 건지,
Whether it was because of the rumors of the tiger devouring
peopleswallowing the impure

보라꾼 : 아니면 요놈의 사람들이 게을러서 산에 오르지 않는지,
or that people were too lazy to go up into the mountains,

원경꾼 : 여하튼 산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것이었다.
There wasn't a single person to be seen.

엘라꾼 : 그거 참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여
Thinking it strange and being curious,

용화꾼 : 마을로 한번 내려가
the tiger decided to go into... the village town

꾼들 : 보는데!

엘라꾼 : 잠깐! (호랑이 꼬리를 흔들며) 이 모양 이 꼴로 내려갈 수야 없지.
Hold on a moment! I can't go looking like this.

꾼들 : 암만, 그렇지. No, you're right. You couldn't.

보라꾼 : 그리하여 변신을 한번 해 And so, the tiger... transformed

꾼들 : 보는데!

(#10. 노래 : 변신송)

꾼들: 변한다, 변한다, 호랑이가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무엇으로 변해볼까~

Transform, transform, the tiger transforms

Transform, transform, what to transform into ~

음악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야기 주고받는다.

엘라꾼 : (부채로 여자로 변신하며) 여자 어때? 여자!

How about a girl?

(보라꾼도 “여자?”하며 부채로 함께 치마 만들어 순간 여자로 변한 모습 보여주고, 용화꾼
“좋지!”하며 호응한다.)

원경꾼 : 아냐, 노인으로 변하는 거 어때?

No, how about transforming into an old man elderly person?

꾼들 : 왜? Why?

원경꾼 : 노인은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띄고 거기에 삿갓을 딱 쓰면!

An old man is less conspicuous and if you wear a bamboo hat...

꾼들 : 딱 쓰면? Then?

원경꾼 : 하얀 눈썹도 안 보일 것 아냐! The eyebrows won't show!

꾼들 : 옳거니! That's right!

꾼들 : (이어서 몸짓과 함께 노래 부른다)

변한다. 변한다, 호랑이가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노인으로 변한다.

호랑이가 사람으로 호랑이가 노인으로~ 변한다!

Transform. Transform, the tiger transforms,

Transform, transform, transform into an old man.

The tiger transforms into a human being, an old man ~ transform!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모두가 부채를 지팡이로 잡고 노인으로 나란히 선다.

한 사람씩 소리를 하며 호랑이의 변신을 부분부분 보여준다.

엘라꾼 : 얼룩덜룩 가죽은 너털너털 도포자락으로 변하고,

The colorful fur leather transforms into a ragged, traditional robe.

꾼들 : 변하고! Transform!

보라꾼 : 꼬리는 돌돌말아 바지춤에 집어 넣고,

Roll up the tail and stow it inside the trousers!

꾼들 : 집어넣고! Stow it!

용화꾼 : 커다란 삿갓 눌러쓰고, Wear a large, bamboo hat

원경꾼 : 지팡이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Where is the cane? Where is it?

꾼들 : 여겼네! Here it is!

원경꾼 :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Hold the cane in one hand!

용화꾼 :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자꾸나. 어흐흥 아니지 에헤hem~

And lastly, clear the throat. It's not a roar but ah-hem~

꾼들s: (관객들에게 바짝 다가가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원경꾼 : 제대로 변하였나 개울가에 바투 앉아요리보고 조리보고 요리조리 살펴봐도

영락없는 사람모습~

Sitting by the small stream, inspecting this way and that way

To see if the transformation was successful. No doubt he looks it is of human form.

꾼들: (가운데 앉아 자기모습에 취해있던 엘라꾼에게 모두 다가가 삿갓 쓴 노인으로 변신을 시켜준다) 꽃중년 할아버지~! An attractive grandpa?

노인 (엘라꾼) : (마지못해 노인으로 일어서며) 꺾...꺾..꺾, 꺾!

(노인으로 걸으며 입소리) 터벅 터벅 터벅 터벅 터벅

꾼들: (이어서 따라한다) 터벅 터벅 터벅 터벅 터벅

원경꾼 : 오솔길 오솔솔솔솔솔 지나가고 Following a beaten trail

용화꾼 : 산고개 굽이굽이굽이 넘어 up and down the hills, up and down the mountain

보라꾼 : 구름다리건너over the bridge

꾼들: 통,탕! 통,탕! 통,탕! 통,탕!

엘라꾼 : 내리막길 타다다다다다다다~

descending a steep decline

용화꾼 : 하여!

꾼들: (내리막길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Approaching the village entrance

노인(엘라꾼): 여기가 마을이구먼.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This here must be the village.

용화꾼 : 어디선가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Something smells foul.

꾼들 : 뭐 냄새여... What is this smell?

보라꾼 : 삿삿 쓴 노인이 코를 잔뜩 틀어막고,

Says the old man wearing thea bamboo hat covering his nose.

꾼들 : 구려, 구려, 구려. Foul, foul, foul!

용화꾼 :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떠드는 곳으로 슬금슬금

Slowly approaching where the crowd isnoisy crowd is

꾼들 : 슬금슬금 Slowly, slowly

용화꾼 : 다가가 보니slowly nearing

꾼들 : 다가가 보니slowly nearing

용화꾼 : 허허,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순 사기에 허풍을 떠는디, 헛바닥에

참기름을 발랐나 술술술술 미끌미끌 잘도 떠드는구나.

Oh, what do you see but swindlers selling worthless goods at expensive prices. Did they lubricate their tongues with sesame oil? Words seem to flow out of their mouths.They speak about their valuable goods convincingly.

노인(엘라꾼) : 흠... 저 녀석들 뭐 얘기를 황당하게 지껄이는지 한 번 들어보자.

Let's see what they're gibber-gabbering about.

꾼들 : 열씨구! (노래) 모여라 모여 모여라 이야기재주판으로 모여라

모여라 모여 모여라 이야기재주판으로 모여라~

Yippee! Gather, gather everyone, hear us out

Gather, gather, gather around and hear what we've got to say~

네 명의 꾀들 모두 노래로(어떤 노래?) 호객행위를 하며 좌판을 열고 목에 건 머플러나 머리끈 등을 활용해 장사꾼으로 변신을 하며 시장판을 펼친다.

바람잡이(용화꾼) :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오셨어유. 많이들 모이셨네유.

여기, 보기에는 허접스레 해도 얘기 한 번 들어보면
귀가 솔깃솔깃 해지는, 묘~한 물건들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팔도강산 장사꾼들이 죄다 가져왔응게
지갑 열 준비들 합서양! 혼자옵서예~

Wecome! Please come and see for yourself.
These It may looks like nothing special,
But here you'll find here rare and delightful goods.
Merchants have brought all kinds of goods from the
Provinces of Cholla, KyeongSan, Chungcheong, and elsewhere.
So prepare to open your wallets! Welcome~

용화꾼이 바라잡이꾼에서 (예: 까만 점을 붙여서) 장사김으로 역할을 입는다.

충청도장사꾼 :

안녕하셔유 저는 충청북도 보은군 두북리 산 69번지에 사는 장사 김이어유.
제가 장사를 잘 한다고 해서 장사김이 아니고유
바로 힘이~~ 힘이~ 장사여서 장사김인디유~~ ㅎㅎ
아차!! 애들은 잠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봐유~~ 애들만 보는 공연이 아니랑께요~~
궁께! 제 힘의 원천인 이것을 어머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구만요
제 힘의 원천인 이것이 무엇이나 무엇이나면유...
야라분 토끼와 자라 이야기 아셔유..? 병든 용왕을 위해 자라가 무엇을 구해야 했쥬??
그렇쥬 토끼 간이어유... 근디 자라가 토끼 간을 구했슈 못구했슈? 못구했쥬? 왜 못구했는지
아셔유?
바로 지가 먼저 구해서 못구한거여유~
못 믿겠슈? 이 장사 김의 기가막힌 소리를 한 번 들어보셔유.
(소리조) 그때여 장사 김이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한다는 소문을 속닥속닥 듣고 자라보다 먼
저 토끼간을 구하러 떠나보는디!

Hello! I'm Kim, from 69 Dubukli Mountain, Boeun Area, North Chungcheong Province. I-eo, the strong. They call me Kim the Strong cause I am...strong! I'm from North Chungcheong Province, Boun Area, Dubukli Mountain, 69. Oh my! Children please cover your ears and close your eyes for a moment. This is no show for children. I want to tell you motherhousewives from where I get my manly strength,. You ask what must tthe source of my stamina.rength? Do yYou know the story of the hare and the tortoise? What did the tortoise have to procure for dyingthe sick dDragon-kKing? Yes, of course, it was the hare's liver. But did the tortoise procure the hare's liver? He didn't, did he? And do you know why he couldn't wasn't able to?

Well, that's because I snatchedprocured it before he did~

Why, you don't believe me? Take a Listen to this wonderful voice of Kim, I-eo, the sStrong.

(소리조) 그때여 장사 김이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한다는 소문을 속닥속닥 듣고 자라보다 먼저 토끼간을 구하러 떠나보는다!

It was then that Kim, the Strong, upon hearing that the tortoise was looking for the hare's liver, set sought out to find the hare's liver before the tortoise.

아차차~ 여러분이 시동을 걸어주셔야 햐유~ 제가 아전 아전 아전 하면 여러분이 아전 아전 아전 따라 햐주셔야햐니다유~~
아셨쥬? 햐볼햐유 아전 아전 아전 아전~~~

Okay~ You'll have to work with me~ Repeat after me. Understand? Let's start, then.

아 전라도에 들어가서 지리산 토끼 간을 말리고
경상도 들어가서 팔공산 토끼 간을 말리고
충청도로 들어가서 계룡산 토끼 간을 말렸지
아 얼씨구나 기분 좋다~~ 이 세상 토끼 싹들이 햐다~
자 어햐유? 이제 믿으시햐쥬? 아직도 못 믿햐쥬?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려햐유 잘 보햐유... (손-뺨)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보햐쥬 이게 아직도 두근 두근 거려유
그래서 딱 두근이햐유...
이것을 딱 100그램씩만 잘라서 침기름 살짝 발라 꿀꺽 삼키시면!!
삼키시면~~ 삼키시면.. 몰라 난 모르햐쥬~~ 누가 눈햐냐?
딱 100그램만 사햐유~ 천오백 냥에 드려유.
햐다~ 햐! 햐다~ 햐!

Went to Cholla Province to dry up the seed of a Jiri Mountain hare.
Went to Kyeongsan Province and dry up the seed of a Palgong mountain hare.
Went to Chungcheong Province and dried up the seed of a Kyerong mountain hare.
My goodness, life is wonderful~~ I've cleared up the entire hare population of hares in the world.
How is it? Now do you believe me? You still don't?
Then, I'll have to show you directly. Watch.
Thump, thump, thump, thumpPounding, pounding~~~You see? It's still pounding.
beating
That's why it only weighs two pounds..
All you have to do is cut up a little piece100gram size, dip it in sesame oil and

swallow!

If When you swallow, if you swallow...I don't dare speak of its consequences.Well, I don't know~~Keep your eyes closed, kids!Who wants?

Buy just a little piece 100 grams for 1,500 nyang (old Korean currency).

It's a dirtCheap, cheap price, it's cheap!

제주도장사꾼과 전라도장사꾼이 “안 사! 안 사!”하며 충청도장사꾼을 몰아낸다.

전라도장사꾼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아아~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제주도장사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흔저옵서예~ Welcome, welcome.

전라도장사꾼: 안녕하세요~ 저는 저그 전라도에서 온 안진실!

Hello. I'm Ahn Jinsil (literally meaning sincere) from Cholla Province.

제주도장사꾼 : 저는 저기 제주에서 온 안다다시! 이우다.

From Jeju island, my name is Anda (literally means to know)

둘 : 그래서 우리는 전라도, 제주도 둘이요. 핫, 둘!

That makes the two of us.

전라도장사꾼 : 박수 한 번 시원하게 주쇼~ 우리가 가져온 첫 번째 물건!

Please give us a round of applause~ Here's the first item we've brought for you!

제주도장사꾼: 내가 먼저 소개해주크다양! 내가 해녀출신이우다양{다양!} 경행으네

바다에 물질하러 딱 들어가신디양{신디양!}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 come from a family of divers. We go deep in the sea to catch

(소리)전복 해삼 도미 민어 오징어 조개 방개 홍어

상어 술치 눈치 준치 멸치 삼치 갈치 가재 개구리까지!

Abalones, sea cucumbers, snappers, croackers, squid, clams, water beetles, skates

Sharks, anchovies, Spanish mackerels, cutlassfish, crayfish, and even frogs

다 하영 잡고 이신디양 갑자기 조~~~기 100미터 전방에 뭐가 뻥뻥뻥 {반짝반짝!}거리는 거우다양. 경행으네 다시 잠수를 탁해서마썸 가신디 그게 뭔지 아우파? 바로 요 펜도롱한 힘을 갖고이신 박!씨! 이우다!! {우다!}

이 박씨를 딱 심고양 하룻밤만 자봐양. 다음날 눈을 뜨면! {대박! 박이 주르렁 주렁 열러부렸네!}

Then Deep 100 meters below was I saw something shiny. I dove below and what did I find? No other than tThis gourd seed which possess special power. Just plant the seed and next morning, you'll find the next morning lots of gourds.

그래서 이렇게 박을 타면 (둘이 박을 탄다) 시리렁 실근 쓱쓱콕! {시리렁 실근 쓱쓱콕!}

Then split open the gourd like this!

이렇게 타면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이 막 하양 나오는 거우다 {우와~} 완전 뼈까번쩍한 집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저번엔 남자친구도 두 명이나 나왔수다게!!

And when you do all the treasures and goods you desire fall come out of it. Extravagant mansions homes, smartphones, and even two boyfriends came out last time.

내가 딱 다섯 개를 주워신디 홍보 한 개 주고 놀보 한 개 주고 하다보난 이제 딱! (둘이 같이) 핫, 둘! 두 개 남았수다양 300냥이우다!! 얼른삼서양~~ 시르릉 실근 쓱싹 콕각!

I had exactly five seeds but gave one to Heungbo, another to Nolbo. One, two! We've got two left. Hurry up and take it for only 300 nyang.

전라도장사꾼이 사람들의 호응에 반응해주고는 그 다음 물건을 소개한다.

전라도장사꾼 : 두 번째 물건! (상자를 꺼내며) 자 요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여!

Second item! This is the most important one item!

둘이 같이 각종 주문을 외워가며 상자를 연다.

둘 : 빠밤 빠밤 빠바바바 바바바바

전라도장사꾼 : 뚜껑을 열어야겠어. I must open the lid.

둘 : 붕붕붕붕 붕붕붕붕~

뚜껑을 열고는 커다란 붓을 꺼내든다.

둘 : 붓이 춤을 춘다! The brush is dancing!

충청도장사꾼 : 저거 실 아니여? Is that thread?

전라도장사꾼 : 아니여. 낚시 끈이여. No, it's for fishing line.

제주도장사꾼: 일기 실평한 사람 ?

For those who hates fail to do keeping their journal homework?

전라도장사꾼: 여기 일기 쓰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s if you don't like keeping journal writing your diary!

제주도장사꾼 : 독후감 실평한 사람?

For those who hates fail to write your papers book reports?

전라도장사꾼: 독후감 쓰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s if you don't like writing book reports papers!

그라지 그라지 요 요술 붓만 있으면 (둘이 같이) 만사 오케이여.

Yes, yes. All is taken care of if you've got this magic brush.

요것을 딱 잡고 책위에 올려놔봐. 그리고 생각만 혀!

Just hold the brush and position it on the book. And think.

그러면 지가 알아서 술술술술 일기도 술술술 독후감도 술술술

지가 알아서 술술술~~ 써진당께.

Then the brush will automatically write for you.

전라도장사꾼: 이순신장군 다 알지? 그 낭만이 저기 멀리 전장에 나가 용맹히 싸우시며

그 유명한 책을 남겼잖여. 그 책이 뭐여? 그렇지, 난중일기!

그 난중일기를 누가 썼어?

You all know General Yi, Sunsinn don't you? He fought those battles and left that famous journalbook. What was that book? Yes, his war journal diary! Who wrote that war diary?

아, 깡깡들 허구만! (둘이) 바로 요 붓이 썼당게. 이순신은 그냥 이 붓을

잡고만 있었어. 그랬더니 붓이 알아서 술술술술 쓴 거여.

You're all clueless! This brush, of course! All General Yi did was hold the brush and the brush did the rest.

근디 요것이 글만 쓰느냐 그럼 우리가 판매를 못하러 나왔지. 요 붓

뒷구녕을 잡고 (둘이) 오를롤롤롤롤 뽀! 하고 열면 여기 수납기능까지있어.

수납의 대표적인 예! 문, 익, 점. 그 양반이 이 붓에 목화씨를 담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있당게. 뭣 때문에? (같이) 요 때문에!

But if the brush could only write, well, we wouldn't be here selling this. would we. But you see Open the back of the brush... Screw it open...and voila! where the opening is? Well, the This brush stores things. has storage function. Mun Ik Jeom, that man, smuggled hid cottonseed in the brush so that. And now we all live comfortably now. Why? Because of this brush!

전라도장사꾼 : 근디 이런 따블 기능꺼정 있는 대단한 붓을 얼마에 모시느냐! 단돈

500냥~

So how much am I asking for this brush with dual- functions brush?

Just 500 nyang.

제주도장사꾼 : 백 개 한정판 베틀랑 윈 플러스 윈입니다양!

You get a free ink slab with a brush purchase. Only for the first 100 lucky customers. It's a buy one, get one free event!

둘 : 이어도사나 언녕언녕사 이래도안사 언녕사

Hurry and buy them! Act quickly!

한양장사꾼인 스페셜송이 소리로 판을 제압하며 들어온다.

전라도장사꾼: 음마! 저 양반은 구라계의 제왕, (둘이) 스페셜 송?

That man! He's the 's singing a special song of the King of the world of Gura?

King of Liars, Special Song?

둘이요장사꾼들, 눈치 보며 얼른 자리에 앉는다.

한양장사꾼(보라꾼) : 어~ 아~ 떡~!!

요술붓 기가 막혀 일기가 술술술술? 근데 그거 붓 잃어버리면 말짱
헛거야. 머리가 좋아져야지! 그래서 이 스페샤르 송이 스페샤르한
물건을 준비했지. 이게 뭐고 하니.

The magic brush that writes? But what good is it if you lose it? What you need is
a smarter brain! That is why I, Special Song, 've prepared a special song about a
special item. Let me tell you what it is.

(엇모리)

우리나라 최고의 장영실 박사랑 미국땅 최고의 아인슈타인 박사랑
둘이서 손잡고 10년동안 끈질기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세계 최초 세기의 스페샤르한 발명품 요것을 만들었지
요것이 바로 장원급제의 지름길, 장원~떡!

The well known Korean scientist Jang, Young-sil and the most brilliant American
scientist Einstein joined forces together and researched for 10 years.

They came up with this special object: Jangweon rice cake.

A shortcut to score theplacing first place on the statenational examination.

요떡이 뭐냐, 요거를 떡 하니 책 위에 올려놓고 하룻밤만 딱 자봐
그럼 밤새 책 내용을 짹짹~ 빨아들이는 거야.

요떡을 먹는 즉시 책 내용이 머릿속에 쓱쓱쓱쓱 들어와

바로 이 떡이 어젯밤에 훈민정음, 훈민정음에 올려놔던 떡이야

내가 한번 먹어볼게. (입소리) 꿀떡꿀떡꿀떡

나랏말쌈이 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있어서도 제 뜻을 능히 실어 퍼디~ 이이~ 이이~ 이이~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야.

요게 바로 장원~ 떡!

Place the rice cake on top of a book and while you're sleeping,
the ricecake absorbs the book's content.

And the moment you eat the rice cake you retain all the knowledge.the book's
content.

This rice cake was placed on top of Hunminjeongeum last night. (Hunminjeongeum
is the first document written in the Korean script hangul).

Let me eat it.

"Since the Korean language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the ignorant people
could not express what they meant to say in letters..."~~~~~(recites poorly
an excerpt from the Hunminjeongeum)

This is when you give a round of applauseclap.

TYes, this is Jangweon rice cake!

엄마들 뉘놓고 박수만 치면 뭐하나 얼른 지갑들을 열어야지!

Mothers, don't just clap your hands, open your wallets!

요 떡 효험본 사람 참 많아. 은반 위의 여왕 김연아! 우리 장원떡 10종 세트 먹고 스핀의 교과서가 되가지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떡하니 타. 떡하니 붙어서 빙판에서 미끄러지질 않잖아.

Many have already benefitted from this rice cake. Kim, Yeona! She ate Take our this 10 piece rice cake set and get your got her Olympic gold medal. She never slipped on the ice.

심지어 우리 장원떡 좋은 줄은 짐승들도 알아요. 호랑이들 사이에서 어찌나 인간지 요 떡 한 입 먹어보겠다고 저기 저~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다니깐. 유행어까지 생겼어. 다들 알고 있지? 몰라? 에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요게 바로! 장원~떡! 한 개에 99냥, 5개 세트에 499냥에 모십니다~

Even the What is more animals know about our rice cakes. Even tTigers come all the way from Baekdu Mountain to try it. There's even a popular sayingong about this rice cake. You all know it, don't you? "If you give me one rice cake, I won't eat you'll let you free." That's a reference toreferring to this rice cake! One piece is 99 nyang, a 5 piece set is 499 nyang.

한양장사꾼이 사람들에게 흥정을 시작하자 다른 장사꾼들도 모두 나와 왓자지껄 물건을 팔고자 떠들어댄다. 이 때 한 장사꾼(용화꾼?!)이 펼쳐졌던 좌판을 접어서 이동시킨다.(무대전환) 멈춤 신호 울리면 모두 멈춘다.

약사 : 응? 백두산 호랑이가 떡 좋아하는 이유가 저 장원떡 때문? 아차! 나도 깜빡 넘어갈 뻔 했군. 어허.. 이놈들 이 구린 속이 어떤지 속마음을 좀 봐야겠다!

Instrumentalist: What? That rice cake is the rice cake the tiger from Baekdu Mountain

likes? Why, even I almost fell for it. We better I'd better start reading their minds.find out what their hearts look like.

(# 14. 노래 : 속마음 송)

꾼들 : 휘~ 휘~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휘휘날려~ 하얀 눈썹 휘휘날려 하얀눈썹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썰룩썰룩 하얀눈썹

Swoosh, swoosh

Let's see, let's see, let's see

Swoosh, swoosh, white eyebrows flutter in the air

When they flutter, minds become clear and visible

Those eyebrows, white and discerning.

Shine, Shin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Shine, Shine, White eyebrows shine, White eyebrows shine

White eyebrows shine and discern the hearts White eyebrows shine and discern the hearts

Discerning white eyebrows

모두 노래를 부르며 무대중앙에 모여 노래가 끝나고 신호가 울리면 각자 사람 속 짐승 모습을 보여준다.

용화꾼 : 이렇듯 호랑이가 짐승같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

The very moment the tiger was about to eat the beast-like impure-hearted people!

꾼들 : 순간! That moment!

엘라꾼 : 저기 짙간한 도롱이 쓴 아이가 걸어오는데

Aa child wearing a straw raincoat was approaching

보라꾼 : 고개를 가우똥가우똥, Hhis head tilted to one side

원경꾼 : 주위를 기웃기웃 하며 걸어오는구나. (아이로 역할을 입을 준비를 한다)

Walking over, carefully inspecting his whereabouts.

꾼들 : 어디? 어디? Where? Where?

이야기꾼들이 관객석에서 찾기라도 하는 듯 시선과 걸음을 옮겨 객석쪽에 앉는 동안, 이야기꾼 한 명이 병풍에 걸려 있는 도롱이를 쓰고는 아이가 되어 걷는다.

(# 15. 음악 :도롱이 쓴 아이 등장 송)

아이 : 나는 나는요 도롱이 쓴 아이 나는 나는요 호기심이 많지요 나는 나는요 도롱이 쓴 아이 나는 나는요 키가 작지요 넘~ 작아서 어른들이 못보는 세상들을 볼 수 있지요.

I am a child wearing a straw raincoat. I am a curious child.

I am a child wearing a straw raincoat . I am short.

I'm so short that I see things that adults don't see.

궁금한 게 많은 듯 주위를 살피고 고개를 가웃하며 걷던 아이가 문득 어슬렁어슬렁 걷는 삿갓 쓴 노인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따라하며 다가간다.

노인(용화꾼) : 이놈들,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 마음은 짐승으로 우글우글하구나.

내 저놈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려야겠다.

The exterior is human, the interior, beastly and wretched. I'll gulp them down in one bite.

아이(원경꾼) :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수? (산신령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혹시

호랑이님 아니세요?

Grandpa Old man, who are you? Are you a tiger?

노인(용화꾼) : (깜짝 놀라며) 난 평~~범한 사람이야. I'm an ordinary man.

엘라꾼 :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도포자락 사이로 길~다란 꼬리가 보이는 것이었다.

Just as the tiger turned, his long tail peeped out of his robesclothes.

아이(원경꾼) : 누구수? (꼬리를 잡아끌며) 오? 이견 꼬~오~리? 호랑이 꼬리맞쥬?

Who are you? Isn't this a tail? A tail of a tiger's tail?

노인(용화꾼) : (아주 깜짝 놀라서 꼬리를 숨기며) 애비! 나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야

No way! I am an ordinary and average man.

아이(원경꾼) : 호랑이! Tiger!

노인 : (혼잣말로) 안 되겠다. 한시바삐 도망가야겠다. Oh, no. I'd better flee.

[넷째마당] 호랑이가 도망가고 아이가 쫓아간다

보라꾼 : 삿갓 쓴 노인이 줄행랑을 치기 시작하니, 이를 놓칠세라 아이 역시 재빠르게 그 뒤를 쫓아가는디!

The child ran after tThe old man with the bamboo hat flees, and the child runs after him who was running away.

(# 16. 음악 + 노래 : 추격송)

달려간다 달려간다 노인이 달려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아이가 쫓아간다

산넘고 개울넘어 구름다리 건너가며 노인이 도망간다

산넘고 개울넘어 구름다리 건너가며 아이가 쫓아간다

재빠르게 달려가서 저 아이를 따돌리자

어서가자 어서가자 어서어서 도망가

Run away, run away, the old man runs away.

Follow, follow, the child follows Chase, chase, the child chases him.

Past the mountain, the stream, and the bridge, the old man runs away.

Past the mountain, the stream, and the bridge, the child chases himold man runs away.

Better run fast and lose the child

Quickly, quicly, quickly, I must run.

(아니리)

엘라꾼 :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망갈 적 아이는 다람쥐와도 인사하고

The old man runs away, sweating wildly profusely, while the child greets even squirrels

보라꾼 : 조약돌을 잡아쥐고 개울에도 던져보다가

picks up a stone and throws it in the stream

아이(원경꾼) : 하나 둘 셋! One, twom, three!

보라꾼 : 풍당! Plop!

엘라꾼 :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Looks around

아이: 어? 호랑이 할아버지는 어딴지? 앗! 저기있다!

Oh, where is the tiger old mangrandpa? Ah! There he is!

놀란 노인이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간다. 아이 역시 숨어든다.

멀리 산등성이에 작은 부채들로 달려가고 쫓아가는 아이와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빠른 휘모리)

꾼들 : 슬금슬금 가만가만

샤샤샤샤 졸졸졸졸

쫑쫑쫑쫑 폴짝폴짝

샤샤샤샤 졸졸졸졸

달려가고, 쫓아가는 가운데 삿갓과 도롱이 다른 꾀들에게 썩워지며 역할이 바뀐다.

1>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x 2 Run, run, run, run away

2>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x 2 Follow, follow, follow follow

Chase, chase, chase, chase after him!

1>+ 2> (같이)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Run, run, run, run away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Follow, follow, follow follow

Chase, chase, chase, chase after him!

노인이 서서히 걸음을 멈추자, 아이는 나무뒤에 숨는다. 꾀들 작은 언덕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다.

호랑이(보라꾼) : 휘익! 휘익! 정말 끈질긴 녀석이야. 나같이 천살 먹은 호랑이나 되니까

간신히 따돌렸지 한 백 살쯤 먹었으면 영락없이 잡혔을 판이여. 잘했어, 잘했어!

That relentless child. Being a thousand-year-old tiger, I narrowly escaped him. If I were was only a hundred years old, the child would have caught me. But alas! I, a thousand years old, got rid of him. Well done!

원경꾼 :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지.

Looking around to see no one in sight is present,

용화꾼 : 그제서야 삿갓 쓴 노인이 호랑이로 변하기 시작하는디!

The old mand in bamboo hat wearing old man begins to transform into a tiger.

연주 시작되면, 숨어있던 꾀들 나와 변신을 보여준다.

(# 17. 노래 : 호랑이로 변신송)

변한다 변한다 노인이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호랑이로 변한다.

노인이 호랑이로 노인이 호랑이로~ 변한다! 어~흥!

Transform, transform, the old man transforms

Transform, transform, transform into a tiger.

The old becomes a tiger, the old man becomes a tiger ~ transform! Roar!

[다섯째마당] 아이의 속마음을 보다

아이는 나무 뒤에 숨어서 삿갓 쓴 노인이 호랑이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야기 꾀들이 삿갓 쓴 노인의 몸에 각각 몸통, 다리, 꼬리로 붙어 커다란 호랑이가 된다.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포효하는 호랑이.

아이, 깜짝 놀라 뛰쳐나온다.

아이(엘라꾼) : 오! 호랑이! 진짜 호랑이 맞다! 오와~ 오와~ 오와~

Tiger! It's really a tiger! Wow!

더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호랑이, 좀 전의 기개는 사라지고 어리둥절해한다.

그 주위를 아이가 돌며 놀랍고 신기한 듯 생김새를 살핀다.

호랑이(꾀들) : (속닥거린다) 히약! 저 아인 아까 그...

What? That child. I thought..

아이(엘라꾼) : 저 얼술덜숭한 털 좀 봐! 우와 다리 엄청 굵네! 퍽! 퍽!

Look at the tiger's hair! His legs are so thick!

어, 꼬리? 저 꼬리 내가 아까 본 건데...

And his tail? I saw that tail earlier...

아이가 꼬리를 만지려 다가가자, 어흥 위협하는 호랑이, 어흥 따라하며 반응하는 아이.

호랑이(보라꾼) : 맹랑한 녀석이구만! 안 되겠다, 필살기!

What a difficult mischievous child! Death it must be!

호랑이, 다시 커다랗게 어흥 외친다. 아이 역시 커다랗게 어흥 한다.

호랑이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어흥을 하던 아이가 하얀 눈썹을 발견한다.

아이(엘라꾼: 어... 하얀 눈썹... 호랑이님도 하얀 눈썹이 있네요?

White eyebrows...You have white eyebrows? Like in the story grandpa told me!

우리 할아버지 얘기가 맞았어! 아! 하얀 눈썹을 가진 호랑이님은 엄청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던데요? (떠올리며) 아, 마음 속을 볼 수 있다면서요?

Ah! Tigers with white eyebrows are said supposed to possess a mysterious ability.

Um... like the ability to read discern the hearts of people's mind?

한번만 만져보면 안 되요?

Canould I touch it please just once?

아이가 하얀 눈썹을 만지려 하자, 얼른 얼굴을 피하는 호랑이.

호랑이(보라꾼) : 에비! 저리 가! Shoo. Go away!

그러자 아이는 정직하게 몇 걸음 물러선다.

아이(엘라꾼: (바로 따라하며) 저리 가! Shoo. Go away!

호랑이(보라꾼) : 어허! 아무나 함부로 (꾼들) 함부로 Hey! No one can dare ~You cannot Dare!

호랑이(용화꾼) : 만질 수도, 탐할 수도, (꾼들) touch it, seek it,, envy

호랑이(원경꾼) : 가질 수도 없느니라. Or nor possess it as you want.

아이(엘라꾼) : 가진다고 안 하고... 만진다고만 했는데...

I didn't say I wanted it...just that I just want to touch it.

문득 민망해진 호랑이 헛기침을 하며 아이 곁으로 다가간다.

호랑이(보라꾼) : 네가 정히 만져보고 싶다면 우선!

If you really desire to touch, then

호랑이(용화꾼) : 너의 속마음을

I must look inside and

호랑이(원경꾼) : 들여다봐야겠다.

Discern your heart read your mind.

아이(엘라꾼) : 제 속마음을요?... 어떻게요?

Discern my heartRead my mind? How?

호랑이(꾼들) : (눈썹을 휘날리며) 휘~ 휘~ 휘~ 휘~

Shine~shine~shine~shine Swoosh, swoosh~

호랑이(보라꾼) : 만약 네 속에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짐승같은 모습이 보이면

If I happen to see inside your heart a greedy person, a liar, or any

beastly impure character

호랑이(꾼들) : 보이면, If he does I do

호랑이(보라꾼) : 꿀꺽! (꾼들) : 꿀꺽! Gulp! Gulp!

호랑이(보라꾼) : 잡아먹겠다. I'll gulp you down! (꾼들) : 어흐흥 Roar

아이(엘라꾼) : 네넨. 어떻게 보는데요? Ok. So what do How can you see?

호랑이(원경꾼) : 보자보자보자 Let's see. Let's see. Let's see.

호랑이(용화꾼) : 네 속마음을 보자꾸나. Let's see inside your heartme look inside you.

호랑이, 아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며 눈썹을 휘날린다.

(속마음 노래~)

휘~ 휘~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휘휘날려~ 하얀 눈썹 휘휘날려 하얀눈썹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눈썹을 휘날리면 속마음이 보이지

쉴룩쉴룩 하얀눈썹

Shine, Shine

Let's see, let's see, let's see

Shine, shine, white eyebrows, shine white eyebrows

Eyebrows shine and discern the hearts

Discerning white eyebrows Swoosh, swoosh

Let's see, let's see, let's see

Swoosh, swoosh, white eyebrows flutter in the air

When they flutter, minds become clear and visible

Those eyebrows, white and discerning

아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이리저리 몸을 살핀다.

호랑이가 하얀 눈썹을 움직이며 아이 주위를 맴도는 동안, 아이는“보여요? 보여요?” 묻는다. 심지어 더 잘 보라고 입을 하 벌리기도 한다.

노래가 끝나고 속마음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나 그대로 아이의 모습이다.

호랑이(보라꾼) : 아이 모습 그대로잖아. I only see a child.

호랑이(원경꾼) : 그럴 리가... 다시! 다시! It can't be...Again! Again!

호랑이(용화꾼) : 하나, 둘, 셋, 넷! One, two, three, four!

다시 한 번 “휘~휘~ 쉴룩쉴룩 하얀 눈썹!”을 외치며 프레임을 만든다.

호랑이(보라꾼) : 이번엔 보이겠지 I'll see this time.

호랑이(용화꾼) : 너구리, 욕심쟁이 토끼 Racoon, a greedy hare

호랑이(원경꾼) : 말썽쟁이 다람쥐 mischievous squirrel

서서히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역시 변함없는 아이의 모습이다. 어리둥절한 호랑이.

아이(엘라꾼) : 제 속마음엔 뭐가 보여요? What do you see?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주위를 맴돌며 아이를 찬찬히 살펴본다.

호랑이는 문득 아이의 속마음에 그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호랑이(보라꾼) : 아빨사! Darnn!

꾼들 : 아빨사! Darnn!

호랑이(보라꾼) :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Why didn't I think of that?

용화꾼 : 문득 생각하기를, 그동안 모두 어른들만 보았지,

Just then he realized. Hhe's been only looking into discerned the hearts of adults.

원경꾼 : 이렇게 어린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었다.

It was the first time to look into discern the heart of a child.

호랑이(보라꾼) : 진작에 어린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라면 훨씬 더 빨리 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쉴 수도 있었을텐데! (부채로 이마를 치며) 아빨사!

Had I looked into discerned the heart of a children, before I could have rested in peace much earlierbeen resting somewhere peaceful! Darnn!

꾼들 : (부채들로 이마들을 치며) 아빨사! Darnn!

아이(엘라꾼): (손바닥으로 마뻑을 치며) 아빨사? Darnn?

[여섯째마당] 호랑이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

용화꾼 : 그제야 문득 정신이 든 호랑이, 좀 전의 그 무시무시한 기세는 내려놓고,

Upon sudden realization, the tiger let down his guard

원경꾼 : 제법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디.

And spoke gently to the child.

호랑이(보라꾼) : 으흠... 너는 내가 안 무섭냐? Are you not afraid of me?

아이(엘라꾼) : 하나도 안 무서워요. Not at all.

호랑이(보라꾼) : 호오 신통하네, 어찌 호랑이가 안 무서울까? (같이) 어흥!

HowSure is interesting! How are you not afraid of a tiger? Roar!

아이(엘라꾼) : (역시 따라하며) 어흥! 호랑이는 너무 무섭죠. Roar! Tigers are so scary.

호랑이(보라꾼) : 뭐라? 호랑이는 무섭고 나는 안 무섭고... 그럼 내가 무엇이란 말이나?

What? Tigers are so scary, but I'm not... What do you think I am?

아이(엘라꾼) : 호랑이요. A tiger.

호랑이(보라꾼) : 이 녀석! 니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You scoundrel! You are lying to me, aren't you?

아이(엘라꾼) :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말이에요...

No...It's just that you're like my grandpa.

호랑이(보라꾼) : 뭐? 할아버지? What? Your grandpa?

아이(엘라꾼) : .우리 할아버지는요 저한테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My grandpa told me lots of stories.

아! 그 중에서 (비밀을 털어놓듯 콧속말로) 백 살이나 먹은 호랑이

얘기도 있었다요. (문득 생각난 듯 갑자기) 혹시! ... 백 살 아니에요?

Ah! There was a story about a 100- year- old tiger. Are you a hundred years old?

호랑이(보라꾼) : 이 녀석아, 나는 처어어어... You idiotsoundrel, I'm a th...

아이(엘라꾼) : 하긴 그렇게 늙었을 리가 없지. 그럼 벌써 죽었게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There is no way you can be that old. Cause you would be dead by now like. Mmy grandpa...

아이, 문득 말해놓고 보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 달을 올려다본다.

호랑이, 아이 시선을 쫓아 함께 달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호랑이(보라꾼) :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가만 이야기를 하려면 이 모습보다는

할아버지가 낫겠지? (호랑이는 노인으로 변하여 아이 곁에 앉는다) 앉아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말이다...

Shall I tell you a story? It's probably better that I tell you a story to do it in a figure of as a grandpa than as a tiger. would it not? Long, long time ago...

호랑이가 노인으로 변하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용화꾼과 원경꾼은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를 한다.

(# . 오순도순 옛이야기노래/옛모리장단)

호랑이가 얘기한다 노인이 되어 얘기한다

아이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듯

호랑이가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듯

소곤소곤 속닥속닥 도란도란 두런두런

우~ 등골이 오싹 무서운 얘기

때굴때굴 하하 호호, 배꼽 잡는 재미난 얘기

홀쩍 홀쩍 눈물이 찼끔 슬픈 얘기

휘영청 달 밝은 밤

산등성이에 마주앉아

오순도순 얘기 하네.

The tiger tells a story in an old man's disguise..
It turns into an old man and tells a story.
Just as a grandfather would with his grandchild
The tiger tells the child a story from a long time ago.
~~~~~

Spine chilling scary stories  
Ha ha, ho ho, funny stories  
Stories that bring make you tears to your eyes  
In the bright moonlightit night  
OSitting on the ridge of a mountain ridge  
The tiger joyfully tells stories

노래가 끝나면 호랑이가 아이에게 하얀 눈썹을 건넨 다음, 조용히 사라진다. 눈썹을 건네 받고 신기해서 눈을 뺄 줄 모르던 아이는 곧 사라진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만 이내 눈썹을 휘휘 돌리며 신이 나서 토동토동 뛰어나간다.  
대금 연주 이어지는 가운데, 절벽 위로 노란 달이 뜨고, 절벽 위에 삿갓 쓴 노인(부채), 도롱이 쓴 아이(부채) 나타난다. 노인과 아이의 눈썹이 휘날린다.

[달는 마당] 다음 이야기판으로 떠나보세

음악 연주가 끝나면, 무대 환해지며 숨어있던꾼들이 한 명씩 나온다.

원경꾼 :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더라?

And then? What happens next?

용화꾼 : 삿갓 쓴 노인은 아이에게 눈썹을 건넨 다음, 다시 “변한다~ 변한다~”

호랑이로 변신을 하여 날듯이 뛰어갔지.

The old man with the bamboo hat gave a piece of his eyebrow to the child,

transformed into a tiger and disappeared.

원경꾼 : 그럼...(부채로 도롱이를 만들며) 요 아이는?

And what about the child?

보라꾼 : (병풍뒤에서 성큼 걸어나오며) 아이는 눈썹을 들고 방방곡곡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었지.

With thoseHolding a piece of the eyebrows, the child went to every nook and cranny in the country.

엘라꾼 : (머리에 썼던 도롱이를 벗어 이야기나무에 걸며) 그래서 도롱이 쓴 아인 지금 어디에 있을까?

So, Wwhere would he be now? might the child with the straw raincoat be about now?

꾼들 : (객석 어린이들을 가리키며) 여기? 저기? 거기? ... (하며 객석쪽으로 다가와 노래를

부른다.)

Here? There? There?...

꾼들 : 나는 나는요 도롱이 쓴 아이 나는 나는요 키가 작지요.

넘 작아서 어른들이 못보는 세상들을 볼 수 있지요.

나는 나는요 도롱이 쓴 아이. 나는 나는요 호기심이 많지요.

I am a child wearing a straw raincoat. I am short.

I am so short that I can see what adults don't see

I am a child wearing a straw raincoat. I am a curious child.

노래가 끝날 때쯤 꾀들 모두 나란히 펼쳐지게 선다.

용화꾼 : 이야기는 이야기 A story is a story.

꾼들 : 우리는 소리꾼! We are p'ansori singers!

용화꾼 : 우리 소리꾼들이 귀신이 되기 바로 직전! 천 살 먹은 호랑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디

We've told the story of thea thousand -year- old tiger right before we wereit was  
about to turn into a ghost !

꾼들: 어찌 재미있게 잘 들었소?

Did you enjoy the story?

보라꾼 : 자, 그럼 우린 또다른 이야기판으로 떠나보세!

Then we shall depart for other audienceslet's tell another story!

꾼들 : 가보세! Let's go!

이야기꾼들, 처음에 이야기를 열 때 불렀던 노래를 신나게 부르며 둥글게 한 바퀴 돌고는  
또 다른 판으로 떠난다.

꾼들 : (노래) 이야기는 이야기, 땀기는 땀기, 마른 논엔 깜부기, 진 논엔 거머리

나막신은 딸까닥, 엽전은 땡그랑, 빗자루 샹샹, 짚신은 찌직, 대문은 삐걱문은 털썩, 숟가락  
은 텅텅, 젓가락은 찌르르르!

A story is a story,

a field is a field,

charcoal in the dry field,

leeches in the wet rice paddies field,

wooden shoes clack,

coins jingle,

brooms swish,  
main gates wooden doors creak,  
staw mat doors thud,  
spoons clang clangclick and scrape,  
chopsticks clicnk!

<끝>